

독서 이상의 경험을 만드는 장소

인제기적의 도서관

이상윤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개요

위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52-7
용도	교육연구시설(도서관)
대지면적	9,993.70m ²
건축면적	2,225.71m ²
연면적	2,996.40m ²
규모	지하 1층 / 지상 2층
주차	49대
높이	11.55m
건폐율	22.27%
용적률	25.81%
외부마감	콘크리트 블록,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도장, 콘크리트폴리싱
구조설계	세움구조엔지니어링
설계	이상윤(연세대), 박세희(지안건축)
설계담당	권재범, 김광수, 허지향, 김형준(지안건축) 고재협, 고덕호, 이서우, 최민규(연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시공	한나라종합건설
기계설계	수양엔지니어링
전기설계	수양엔지니어링
조경	HEA
설계기간	2017.7.~2019.11.
시공기간	2019.6.~2023.6.
준공	2023.6.28.
예산	146억 원
공사비	92억 원
건축주	인제군



하늘에서 바라본 인제기적의도서관

이 도서관을 단순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장소’로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형태나 기능을 넘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이 도서관은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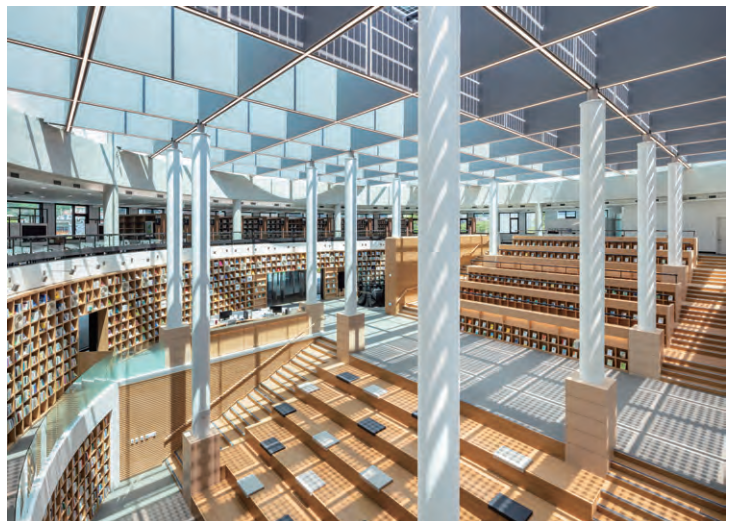




도서관 갤러리



© 2024



© 2024



© 2024

상 계단형 서가
하 갤러리 복도



어린이 열람실



상 원통형 서가
 하·좌 사랑채
 하·우 외부 복도

인제기적의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과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축물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따뜻한 공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인제대

모든 곳을 향해 열려 있는 원형의 건축

장소로서의 건축

인제기적의도서관이 들어설 땅을 처음 밟았던 날, 그 순간의 감정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환희와 기대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채로, 그 모든 감정이 이 땅 위에 서는 순간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를 어지럽게 하였다. 이 작은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창조해 내고자 하는 비장한 마음이 가득하였다.

여기는 대도시가 아니다. 고층 빌딩이 늘어선 스카이라인도, 붐비는 거리도, 세련된 카페도 없는, 소박하고 조용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건축가로서의 힘을 뺄 필요가 있다. 화려한 디자인이나 최신 건축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소박한 건축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이 도서관이 한 번 방문하고 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주 머물고 싶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그렇다. 이 도서관을 단순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장소'로서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형태나 기능을 넘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이 도서관은 특별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장소'로서의 공간 디자인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건축적 영감과 유형적 접근

인제기적의도서관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축 설계를 넘어 공공건축물을 대하는 건축가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여정이었다.

건축가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던 유학 시절의 첫 프로젝트로 도서관을 설계하게 되었을 때, 스튜디오 전체 답사로 루이스 칸(Louis Kahn)의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이 도서관은 단순한 조형 요소인 정사각형과 원형을 사용하여 현란한 기교를 보이지는 않지만, 기하학적인 조화와 교차를 통해 공간적으로 풍성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하였다. 칸의 설계는 공간을 통해 빛과 물질 그리고 인간의 경험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제대
E&A



상 하늘에서 바라본 인제기적의도서관
하 인제기적의도서관 전경



© 사진
박지현



© 사진
박지현

상 모든 곳을 향해 열려 있는 원형의 건축
하 외부 공간

지식과 영감을 주는 성역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 영감은 인제기적의도서관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순수 기하학에 기초한 단순한 조형물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도서관 유형들을 스터디하였다. 수많은 구성과 조합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형을 중심으로 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원형 혹은 원통형 디자인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공간 활용의 제약과 기성 제품 가구 사용의 한계, 그리고 깔끔한 시공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충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형 디자인을 고집한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입지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도서관은 앞·뒤·옆의 구분이 없는 정면성이 부재해야 하였다. 정면성 부재라기보다는 어느 방향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이미지로 보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또한 공간의 중심점을 잡는다는 면에서도 원형 디자인은 매우 중요하였다. 프로그램 유형 중에서 원형경기장, 패놉티콘을 활용한 계획, 광장 디자인, 계단형 극장 등의 조건들이 조합된 장소이길 원하였다. 원형 디자인은 공간의 중심에서 출발하여 모든 방향으로 균형 있게 확장되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방문객들에게 공간의 연속성과 유기적 연결성을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고 감싸 주고 보호해 주는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형의 공간이 사각형의 그리드와 만나 구조적 미와 빛의 연출을 도모하는 유형적 접근은 설계 초기 단계부터 이미 변할 수 없는 숙명으로 결정되었다.

소통과 협력의 결실

인제기적의도서관 설계 과정은 건축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는 단순한 건축 설계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인제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책임은사회재단, 인제군청, 인제군민, 사서를 포함한 운영팀 그리고 군장병들과 그들의 방문 가족들까지도 모두 건축주였다. 다양한 건축주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면밀한 조사와 예측, 분석이 필요하였다. 설계 과정에서의 다양한 만남과 대화는 건축가로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는 것은 곧 도서관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완성되는 길이었다.

도서관과 같은 공공건축물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많은 회의와 간담회

를 통해 설득력을 얻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체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다. 건축가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설계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서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인제군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군인들과의 만남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다양한 요구들을 모조리 다 수용해 주고 싶은 마음에 넘치는 디자인을 하였던 순간도 있었다. 하나같이 모두 소중한 의견이었기에 다 담기에는 부족한 면적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틀을 잡아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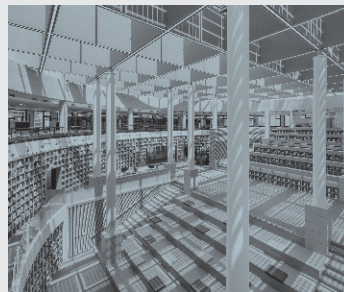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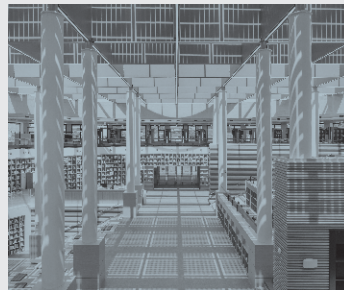
2017년 9월에 설계를 시작해 약 5년 7개월 동안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인제군 군수와 군청 담당자, 시공업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기하학에 기초한 초기 설계안을 큰 변경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꾸준한 소통을 통해 견고히 다져온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확신한다. 건축 초기 계획안이 같은 모습으로 완공되기는 매우 어려운데, 특히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기 설계안을 유지하며 완공이 가능하였던 것은 1%의 기적에 가까운 운과 99%의 노력의 결과이지만 그래도 기적은 기적이다.

문화의 연결선과 지역적 상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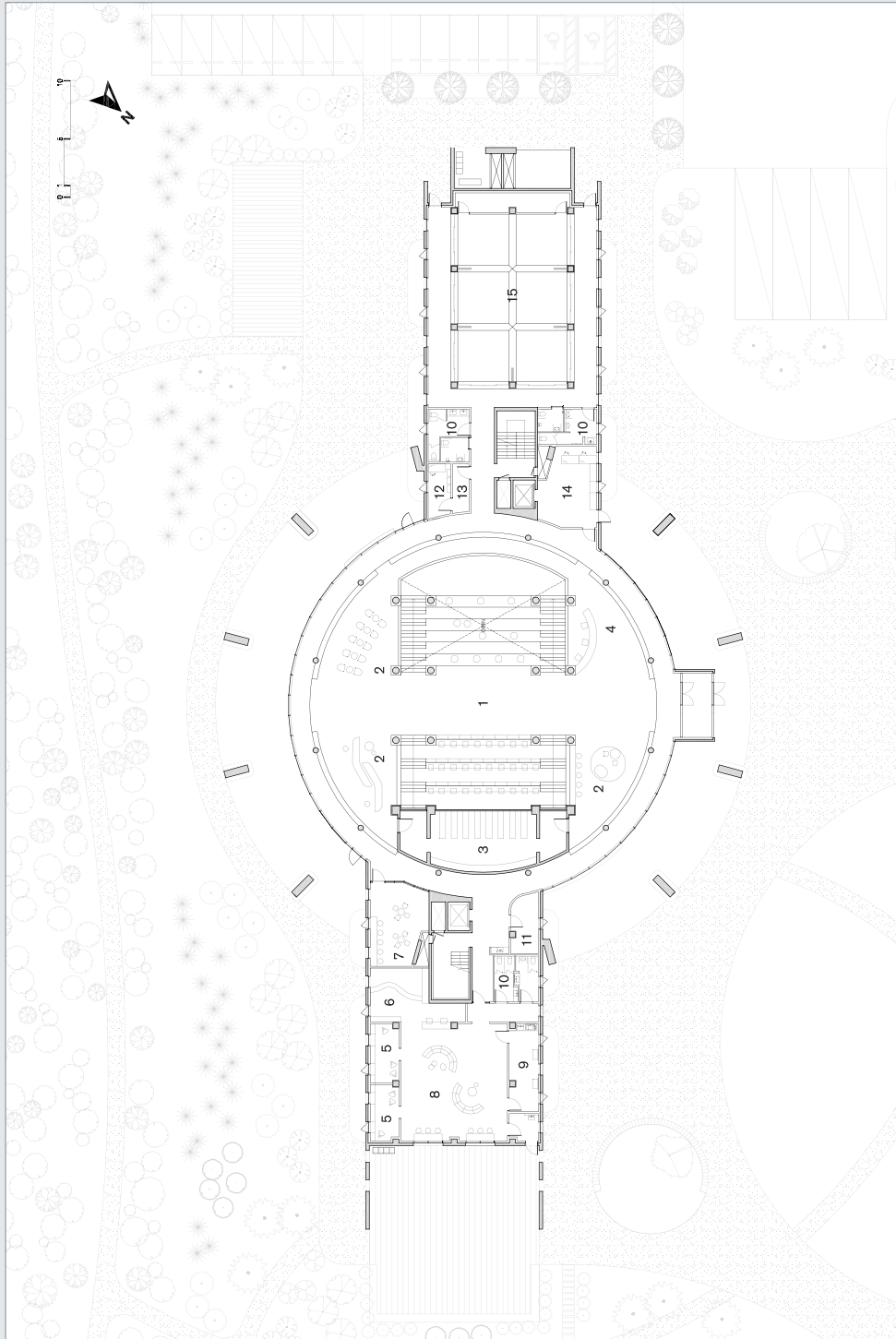
인제기적의도서관은 권위적이지 않고 겸손한 자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적 상징성을 살리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낮은 단층 건물과 원통형 매스는 모든 방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중앙의 원형홀은 천창을 통해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과 날씨에 따라 빛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내부 구조는 원형 로비, 갤러리, 열린 책 공간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고, 어린이 도서관, 평생교육실인 사랑채, 자료실, 열린 극장 등을 개방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소양강과 설악로를 따라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는 인제산촌 민속박물관과 박인환문학관을 잇는 문화의 연결선을 강조하기 위해 100미터에 달하는 낮고 긴 막대기와 같은 매스를 계획하였다.

© 인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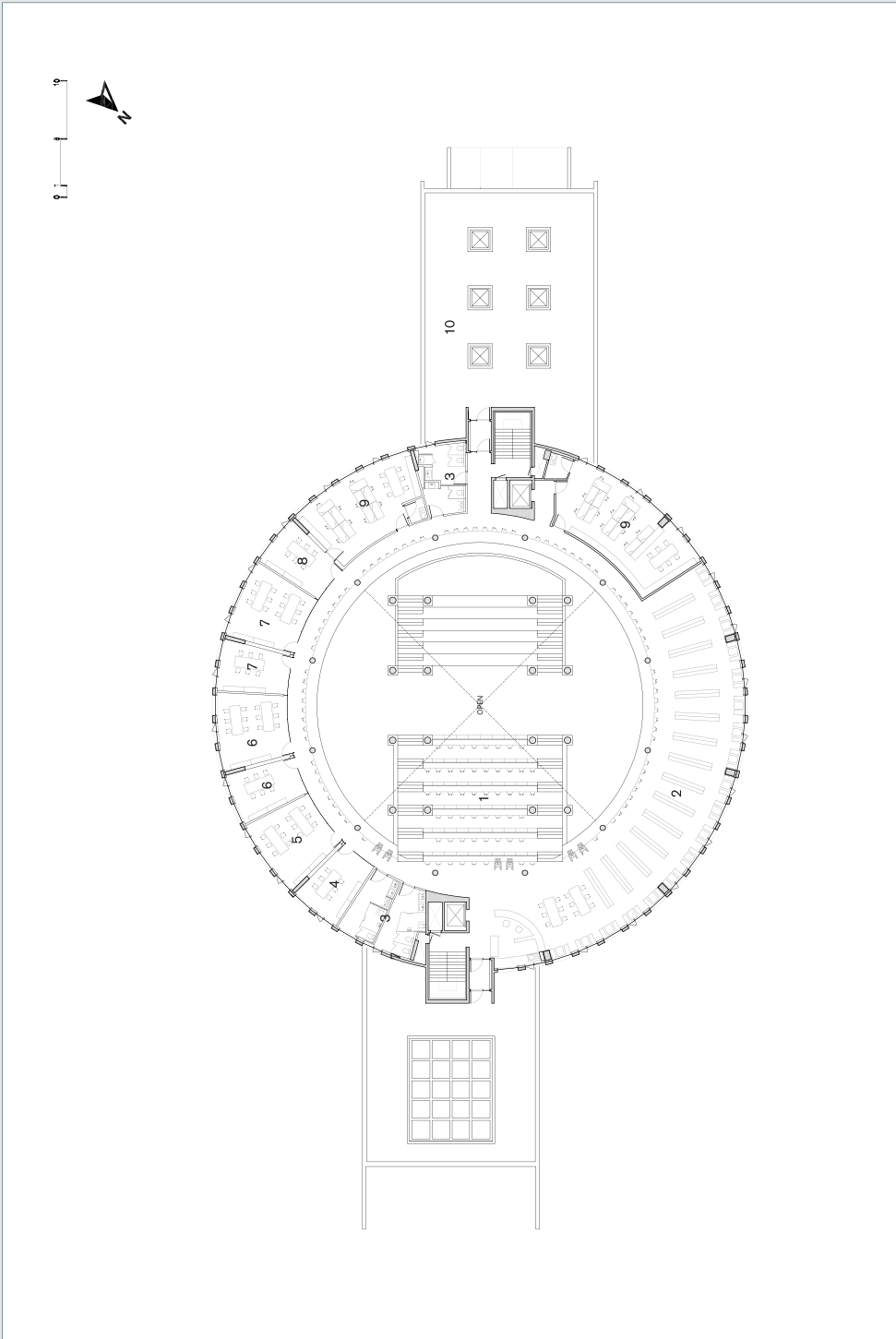


상 도서관 갤러리
중 계단형 서가
하 갤러리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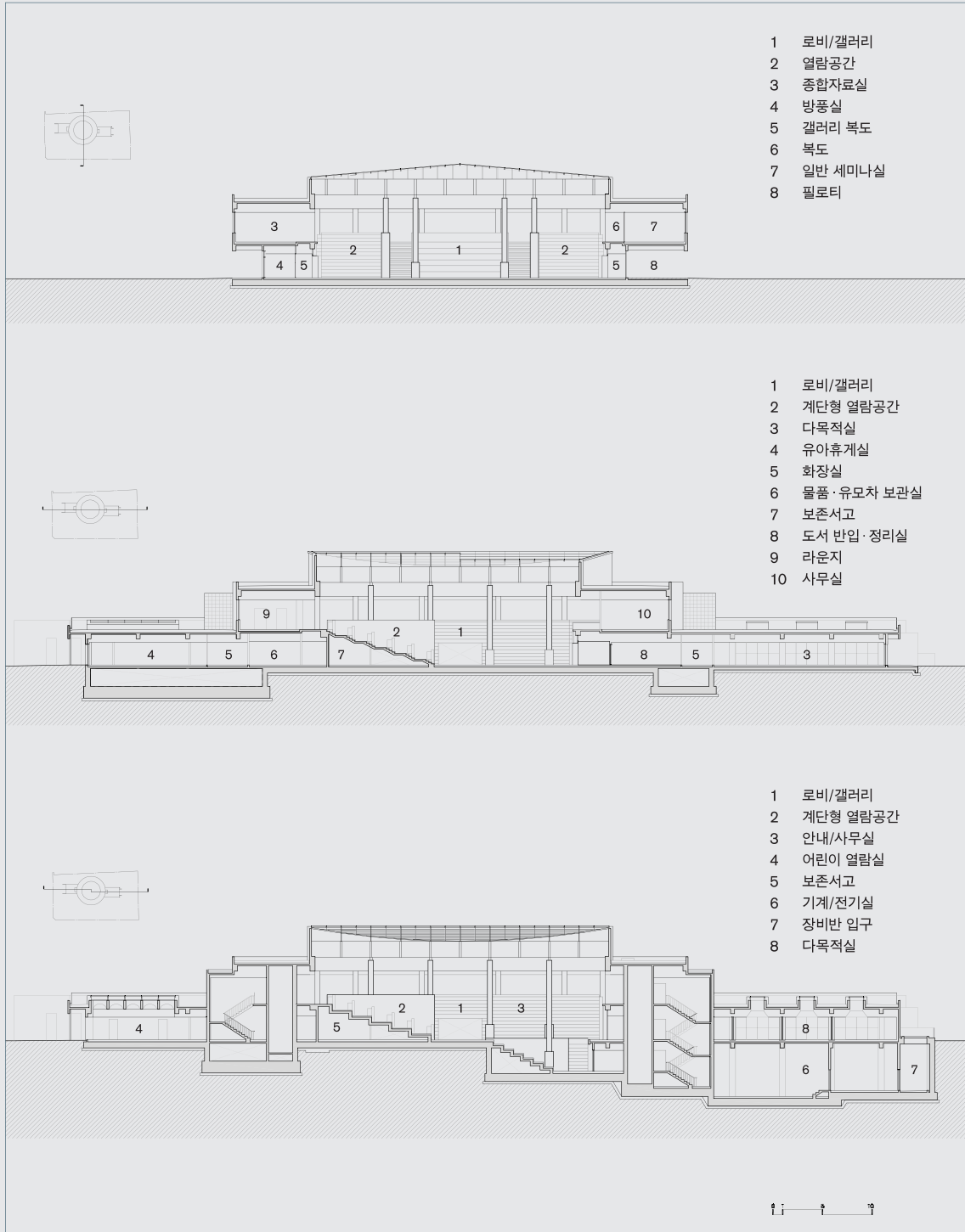
- 1 로비/갤러리
- 2 열람공간
- 3 보존서고
- 4 안내/사무실
- 5 이야기방
- 6 부모 열람실
- 7 휴게실
- 8 어린이 열람실
- 9 유아휴게실
- 10 화장실
- 11 물품·유모차 보관실
- 12 통신실
- 13 안내실
- 14 도서 반입·정리실
- 15 다목적실

지상 1층 평면도



- 1 계단형 열람공간
- 2 종합자료실
- 3 화장실
- 4 비디오킴방, 만화방
- 5 다목적 휴게실
- 6 일반 세미나실
- 7 독서토론실
- 8 자원활동기방, 강사휴게실
- 9 사무실
- 10 옥외휴게공간

지상 2층 평면도



종횡 단면도

그 막대기 중심점 위에 얹은 원통형 디자인은 어느 방향에서나 일관된 정면성을 유지함으로써 보는 이와 대상 간의 관계를 집합과 집중, 그리고 집중과 분산의 이중적인 의미를 갖도록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동북면의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은 멀리서도 쉽게 식별 가능한 순수한 형태를 제공하며, 남쪽의 주거단지와는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관계를 형성해 지역의 상징성을 지니도록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외부와 내부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열린 장소에서 점진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정 공간과 건물 입구, 열린 도서관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구성하여 도서관에 진입하면서 다시 외부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내부로 초대되는 독특한 경험을 의도하였다. 이는 도서관의 로비 공간을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도서관으로 초대하는 전략이다. 방문자들은 입구를 통해 얇은 막 같은 원형 갤러리 복도를 지나 마치 문지방을 넘는 것처럼 도서관으로 빨리 들어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제군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홀, 어린이 도서관, 사랑채 공간을 외기에 직접 노출하기보다는 하나의 커로 감싸 보호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추위나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벼운 내복을 입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공간을 감싸는 가벼운 공기층을 형성하는 디자인이다. 이 공간들은 갤러리, 독서 공간, 가벼운 답소의 자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도서관을 감싸는 갤러리 복도는 시간을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링을 형성하여 예술적인 요소를 선사하였고, 열린 홀은 독특한 형태의 비스듬히 기울어진 계단형 서가와 극장이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원과 사각형이 조형적으로 교차하며 독창적인 그리드 형태를 만들어 냈다. 이를 통해 홀 내부의 기둥이 원과 사각형, 주요 동선축과 교차하며 생성된 그리드에 맞추어 형성되었고, 지붕 구조를 위한 그리드 구조와 조명이 조화롭게 결합되었다. 이는 건축물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도서관의 지붕 설계는 인제군의 슬로건인 ‘하늘 내린 인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천창을 통해 자연 빛의 유입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는 인공 조명 없이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조도를 제공하며, 도서관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직사광선이 도



상 어린이 열람실
하 원통형 서가



© 이상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도서관의 모습

서 보관에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자료실과 같은 서가는 직접 빛이 들지 않는 북향에 배치하고, 빛이 드는 원통형 서가에는 회전율이 빠른 베스트셀러나 최신 도서를 두어 장기간의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공부나 독서를 넘어 융합적인 문화의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과 지속가능성

2023년 6월 28일, 인제기적의도서관이 정식 개관하였다. 이날을 기점으로,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곳은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문화예술의 촉진에 헌신하고 있다. 문화예술 워크숍, 인문학 강연, 작은 음악회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들은 지식의 확장과 창작의 영역을 넓혀 주며,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예술적·인문학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와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경험은 단순한 건축 작업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건축물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재인식하게 해 주었다.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간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이 프로젝트에 적용한 건축물의 생애 주기 동안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 이상의 가치이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영감과 지식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건축물의 사회적·문화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따뜻한 공간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인제기적의도서관이 지식의 보고이자 문화의 요람으로서 그 존재가 확고하게 자리 잡길 기대한다.